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A Comment : The Role of Woman for the Effectiv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전)육군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담임목사
- (현)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김진섭 박사님의 논문은 군선교 현장에 대한 논자의 깊은 애정이 투사된 것으로서 군선교의 발전적 미래성을 예언하고 향후 군선교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역작이라 사료된다.

논자는 이 논문에서 군선교를 향해 한국 교회가 나아갈 두 방향을 제안한다. 하나는 군선교 현장에 여성 사역자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선교 결실의 물꼬를 터는 진중교회 양육 사역에 진력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신학대학원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 신학생으로 하여금 사역지가 없어 목회지가 아닌 곳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군선교 현장에 적극 투입하자는 선교 전략의 제시이다.

논자는 논지를 해명하고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군대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개관을 통해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군대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논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발전은 사회 제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군 안에서 여군의 점증된 활약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여성이 깊어지고 있는 출산과 육아라는 현실적 고충을 남성이나 여성의 독단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완화되고 해소되어진 결과이다.

그렇지만 유독 군선교 현장에서만은 여성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고 논자는 지적한다. 설사 군선교 현장에 여성 사역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포 비율은 남성 사역자들에 비해 미미하다. 군선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여성 특유의 장점인 모성애, 보호본능, 섬세함, 그리고 포용력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활동 양식(modus operandi) 요소들이 거칠고 메마를 수 있는 진중교회의 현장을 돌보고 섬기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지적된 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사회가 아니라 이미 양성평등의 사회로 진입 발전하였다. 남성 위주의 사회 장벽인 ‘유리 천장’을 극복하여 오히려 여성의 영향력이 남성의 점유율을 앞지르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한국군의 여군 상황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논자는 이 같은 상황 인식 아래 이제는 여성 군목 배출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다.

논자에 의하면, 군종 장교가 여성에게 개방되지 못한 이유는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군대 내 종교별 일치된 견해의 부재. 둘째, 기독교 교단별 목회자 배출과 관련하여 일부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실시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셋째, 군 구조 개편에 따라 군종 장교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군종 장교를 추가로 할당할 경우 간단치 않은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 넷째, 주 구성원이 남성인 진중교회에서 여성 성직자의 성공적 리더십 행사 여부의 불확실성 등이다.

논자가 지적한 제 요인들은 국방부가 여성 군종 목사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여건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논자는 여성 역할의 증대와 강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추세에서 그 대안으로 신학교 여성 졸업자의 군종 부서관 제도 시행 검토와 우수 여성 목회자의 군선교 사역 참여 유도 방안, 그리고 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진중교회 ‘세례 장병’ 양육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일부 군인 교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항목도 있지만, 비전 2020 사업과 관련된 여성 인적 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차제(此際)에 매우 신선한 도전이자 제안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신학교육을 받은 여성 전문가와 우수 여성 목회자를 군선교 사역으로의 적극 참여 유도 제안은 비전 2020의 선도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제안이 실행되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에 군종 목사로서 복무 경험이 있는 논찬자의 경험에 비취 사족에 불과한 약간의 덧말을 드려본다.

첫째,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여성 군종 부서관 제도는 그 수가 미미하여 상징적 수준에 머무를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군종 부서관 최저 보직 단위가 사단급 부대인데 전략 단위 차원에서 그 수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군종 부서관의 보임 또한 종교별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수 여성 목회자의 군선교 사역 참여 방안 확대와 관련하여 제일 큰 과제는 여성 목회자의 생활 대책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로 각 진중교회의 재정 상황은 군선교 교역자에 대해 기본적 예우를 하조차 요원하고 벅차다. 그러므로 여성 전문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활용하기에 앞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주축으로 하여 군종목사단과 한국 교회가 이미 실행 중에 있는 군선교 교역자 제도와 연계하여 군선교교역자의 후생 대책에 대해 좀 더 깊은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 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는 평신도 여성 사역자의 진중교회 ‘세례 장병’ 양육 사업 활용 방안은 그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이 기대되는 제안이다. 그런데 군선교 사업에 전문 인력을 훈련시켜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대부분 도시권에 위치한 교회라는 점에서, 전국의 진중교회 전부를 맡기에는 여전히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

이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은 현재 각 사관학교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 활동을 모델로 삼아 군인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제자화 교육을 시켜 군선교의 동역자로 삼는 수고를 더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군대 문화와 좀더 친숙한 양질의 군인 교회 여성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선교가 다 귀하지만, 군선교 또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복음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군인 교회 신자 결연사업에 한국 교회가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우호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군선교를 위한 여성 사역자와 평신도 여성 사역자의 효율적 봉사와 섬김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이유이다.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조명을 통해 한국군 복음화를 위한 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전개하여 주신 김진섭 박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와 관련된 더욱 깊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